



지난 4월 팔관재보존회가 인선 율미도 문화의 거리 특별 도랑에서 선보인 '연일바람' 공연.

# 고려시대 불교의식 '팔관재' 인사동 거리 장엄

## 해동불교범음대학 11일 야외공연...전통의식무·창작무 선보여

고려시대의 불교의식 팔관재를 인사동 거리 공연으로 만나자.

해동불교범음대학의 정대는 스님이 지난 4월 팔관재보존회 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 인사동에서 첫 거리공연에 나선다. 11월 11일 오후 5시 인사동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은 천수바라 요집바라 등 전통 의식무와 진도복춤, 한량무 등 전통무용,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 등 경기민요, '십이지나희' '미륵님오시네' 등 창작무용 등으로 화려한 불교장엄의 세계로 변한다.

2006 인사동 팔관재 문화 한마당 '마을 가득 하늘소리'는 해동불교범음대학 소속 해동불교

범음단과 범라무군 소속 영율림사물림, 무용림, 경기민요림, 명지중학교 범라무군 타악림이 사물을 시작으로 2시간여의 공연을 이어간다.

'마을 가득 하늘소리'는 모두 15개의 무대를 선보인다. 10여분 안팎의 짧은 시간동안 '화관무' '십이지나희' '미륵님오시네' '진도복춤' '한량무' '경기민요' 등의 1부 공연과 '법고무' '천수바라' '도라산타령' '깨비 사물놀이' '천동소리' '경기민요' '아수라·연일바람' '요집바라' '각설이타령'의 2부가 이어진다.

명지중학교 범라무군 타악림이 선보이는 '십이지나희'는 쥐 호랑이 등 용의 가면들 쓰고 분

장한 십이지신들이 신나는 난타무로 시선을 휘어잡는다.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도라산타령', 전통 화관무의 안무를 응용해 부처님께 올리는 법천과 나한춤으로 꾸민 '화관무'도 볼거리.

목정배 작시 박범훈(중앙대 총장) 작곡의 찬불가를 바탕으로 방주 스님(범라무군 불교무용단 단장·인선 관음정사 주지)이 직접 안무를 한 창작 바라나춤 '미륵님 오시네'도 화려한 손짓을 한다.

대은 스님은 "앞으로 팔관재 법회라든가 의식무 등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어디서든

공연을 할 것"이라며 "연말 해돋이 법회, 인선 신년 수륙팔관재법회 등 확정된 국내 공연 외에 해외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02)741-0495

■ 팔관재란  
팔관재(八關齋)는 고려 때의 불교의식 팔관회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팔관회의 시초는 551년 신라에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태조의 훈육심중 중에도 그 중요성을 지적해 성종조를 제외하고는 연등회와 함께 국가의 2대 의식 가운데 하나가 됐다.



십이지신들이 신나는 난타무를 펼치는 '십이지나희'.

팔관회는 중등(仲冬, 11월 15일)에 왕경, 맹동(孟冬, 10월)에 서경에서만 행했다. 이후 불교적인 색채는 거의 띠지 않았고 천령 오악 명산 대천 용신 등 토속신에게 지내는 의식으로 차차 바뀌었다.

팔관재는 팔재제를 뜻하기도 한다. 오계(오대)가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화환이나 향료로 몸을 단장하지 않으며 그것을 즐기지 않는다. 다리가 달린 좋은 짐대가 아닌 마루에서 잔다 등 세 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진제공=팔관재보존회

# 뮤지컬 오세암 잔잔한 인기몰이

뮤지컬 '오세암'이 공연 보름만에 주말 공연이 모두 매진되는 등 잔잔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0월 14일부터 서울 나루아트센터에서 선보이고 있는 뮤지컬 '오세암'은 12월 31일까지 공연한다.

故 정재봉씨의 동화 <오세암>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오세암'은 창단 22년째를 맞는 극단 예일이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숙성시켜 빛아낸 작품이라 자부한다.

엄마를 찾아 길 떠나는 길손이 남매의 눈물겨운 역정이 곁 고운 시적 운문의 형태로 만들어져 어른의 감성에도 큰 울림을 던진다.

연출가 이광열씨는 "남매의 흔적을 놓칠새라 설악산 정상 오세암을 수차례 답사하면서 길가의 풀맹이 하나, 나무 한 그루, 새들의 울음소리, 바람 한 자락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숨결을 온 몸이 담아 왔다"며 "설악산의 사계를 배경으로 낙엽 쌓인 오솔길의 향수어린 정취와 눈보라 치는 겨울 산의 매정함을 아이만의 연극적 언어로 조합해 독특한 조형미를 공연무대에 쌓아올렸다"고 설명했다.

원작 <오세암>은 1983년 발간돼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래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됐다. 뮤지컬로 변신한 것은 이번 작품이 처음이다. <오세암>이 한국인들의 사랑받 받은 것은 아니다.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애니페스티발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애니메이션을 재구성한 만화책 <오세암>도 그 인기를 이어갔다. (02) 2049-4700 강지연 기자



보응 스님 작 '정혜사 관음전 노사나후불탱'.

# 조선 불교미술 3대 金魚 보응·일섭·우일 스님 작품집 나와

조선 불교미술의 맥을 이은 금어 보응·일섭·우일 스님의 작품집이 출간됐다. 보응문성기념사업회, 불모금음일섭문도회, 불모명성우일문도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작품집에는 보응 스님이 작업한 '동화사 괘불' 등 탕화 19점, 일섭 스님의 '해인사 사천왕탱' 등 21점, 우일 스님의 '범어사 팔상탱' 등 23점이 실렸다.

'금어(金魚)'는 불상 탕화 단정의 세 가지들 다 잘해 아만 볼릴 수 있는 명칭. 우일 스님의 제자 허길량(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씨는 "보응·일섭·우일 스님만이 '금어'라 불릴 수 있는 자격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번 작품집은 기획단계만 8년여가 걸렸다. 1998년 사자상승으로 전제된 '우일 스님 초본전' 전시를 계기로 통도사 박물관에 초본 150점을 기증한 때부터 작품집 제작에 대한 기획이 시작된 것이다.

불화장 석정 스님이 작품을 선정하고 범하 스님이

도판을 모아 제작했다. 범하 스님은 "3대 금어의 작품 선집은 전통 불교미술의 맥을 온전히 되살려, 이들의 가르침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 널리 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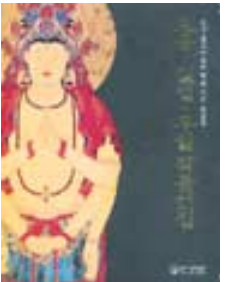
금호 스님을 사조로 하는 금호문파는 제자 보응 스님이 기반을 다졌다. 실력이 뛰어난 금어였던 보응 스님은 금호문파의 변성을 가져왔다.

보응 스님의 말제자 일섭 스님은 20여명의 제자를 거두는 등 두각을 드러냈다. 보응 스님에게 기초를 다지고 일섭 스님을 스승으로 삼은 우일 스님이 계보를 잇고 있다.

현재 불화 단청 불상조각을 하는 이들 가운데 화백을 5대째 이어가는 곳은 금호문파 밖에 없다.

이에 앞서 10월 29일 광주 마곡사에서 보응·일섭·우일 스님 비 제막식이 열렸다.

강지연 기자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가죽만 행화)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80,000원 | ● 규격: 215-290mm |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 가격: 60,000원 | ● 규격: 215-290mm | ● 색상: 회색, 흑

**건강 슬리퍼** (지압(방수) 실리콘 러브) | **중은 점** (인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예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광창은 특수 황금 실리온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가격: 60,000원 | ● 규격: 225-285mm | ● 색상: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김윤경승복 064)724-7999

**정우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믿음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능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 천연 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황토 원적외선 좌훈기** (좌훈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100% 황토와 세라믹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여자들의 냉대하증, 요실금, 산후조리, 치질, 습진 등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취향에 따라 견식 및 한약재티백을 이용하여 습식으로도 가능하며 온도조절이 용이하여 내부를 세탁할 수 있습니다.

● 100% 황토를 사용하였기에 원적외선이 많이 방사되고 은은한 열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 우리의 선조는 황토흙 벽돌로 집을 짓고 생활하였으며 현대도 찻집방, 황토굴 등 자연의 황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 내부 용기 세척이 용이하여 위생적입니다.

● 좌훈은 혈액 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 약제 티백 공급합니다.

특히, **삼용 용원유**

전 원	220V
규 격	380×380×420
소비전력	650W
중 량	12kg
식약청 제조허가 1687호	

**두영엔지니어링**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43-17 TEL : 053)985-6939,6940 FAX : 053)985-6930 H.P : 011-810-3301